

한 몽골 경제교류 현황 및 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1) 연도별 교역현황

연도별 한-몽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5	27.9	49.5%	9.7	100%	18.2
1996	26.0	-6.9%	2.1	-78.7%	23.9
1997	25.7	-1.4%	2.4	17.9%	23.3
1998	39.2	52.7%	5.2	112.9%	34.0
1999	39.8	1.4%	4.5	-13.5%	35.3
2000	54.7	37.5%	2.1	-53.6%	52.6
2001	76.6	40.0%	2.3	13.1%	74.3
2002	87.2	13.9%	5.7	143.4%	81.5
2003	99.5	14.1%	3.9	-31.4%	95.6
2004	75.3	-24.3%	4.6	17.1%	70.7
2005	77.6	3.1%	4.9	6.6%	72.7

자료: KOTIS

□ 1985년 54만4,000달러를 수입하면서 교역 시작

- 한·몽간의 교역은 우리나라가 1985년 54만4,000달러를 수입하면서 시작되었음.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양국 교역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1989년부터 양국 교역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

□ 對몽골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 기계류, 화학제품 등

- 수송기계, 기계부품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들어 기계부품의 대몽골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

한국의 對 몽골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수 송 기 계	21,858	13.3%	23,757	8.7%
2	기 계 부 품	6,924	-67.5%	10,999	58.8%
3	화 학 제 품	5,208	-0.5%	5,484	5.38%
4	전 기 부 품	6,085	-41.5%	5,241	-13.9%
5	음 료 및 주 류	6,833	-14.3%	4,647	-32.0%

자료: KOTIS

□ 주요수입품은 농산물, 비철금속제품, 임산물 등

- 광물성원료, 의류제품 등은 꾸준한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광학기기와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의 대몽골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몽골의 농목축업의 성장과 함께 조제식품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對 몽골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광 물 성 원 료	3,621	220.2%	2,548	-29.6%
2	철 강 제 품	-	-	1,095	-
3	의 류 제 품	317	-58.0%	320	0.9%
4	조 제 식 품 류	54	-	155	187.6%
5	항 공 기 부 품	59	-56.3	109	84.4%

자료: KOTIS

<참고 1>

<외국산 맥주에 대한 몽골의 차별적 특소세 부과문제>

- 몽골측의 '04.12월 수입맥주에 대한 차별적 특소세 부과 관련 법안 통과로 우리업체에 큰 손실 발생
 - 국산에는 \$0.2/l, 수입맥주에는\$0.5/l부과
 - 2003년 우리나라 맥주의 對몽골 수출이 743만불(시장점유율 80%)에 이르렀으나, 최근 몽골 국산맥주의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함(전년대비 판매량이 50%감소)에 따라 차별적 특소세 부과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룸.

- 이에 우리정부가 WTO 규정위배를 이유로 차별적 특소세를 조속히 철폐할 것을 주장 함에 따라, 몽골은 '05.6.30 특소세를 개정하여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 (Excise tax)를 몽골 국내산 제품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간 차별적 특소세를 적용받아온 우리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투자 금액은 비교적 미미, 향후 투자 증대 기대

- 지리적으로 원거리이고 내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나라의 對 몽골 해외투자 실적은 비교적 미미한 편으로, 총 81건에 약 28백만 달러 규모임.(2005년 말 기준)

최근 對 몽골 해외투자

(단위 : 천 달러)

신 고 (누계)		총 투 자 (누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7	55,247	81	28,084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우리나라는 몽골과 1991년 3월 무역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 4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관련 제반 협정을 구비하였음.
- 그러나 투자환경 미비, 기술인력 부족, 국내시장 협소, 비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정보수집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 부족, 내륙운송 곤란 등으로 아직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제조업, 도소매업 투자가 많으나 서비스업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對몽골 투자 중 건수로는 제조업 투자가 22건 (534만 달러)으로 가장 많으며, 액수로는 도소매업 투자가 1,054만

달러(20건)로 가장 많음.

- 최근에는 통신, 운송 등 서비스업과 광물자원을 이용한 광물개발 사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 한국기업 對몽골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천달러

투자 회사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한국전기통신공사	1995	전화, 전보 서비스(수리포함)	4,500
대 한 전 선	1999	이동전화 서비스	3,559
삼 산	1994	의류생산	1,520
에이스 인베스트	2004	도·소매업(생필품)	940
경 주	1999	가구생산	802
금 강 교 역	2003	숙박업(호텔)	720
웨이리치 리소스	2003	문화사업(영화상영)	668
하 나 이 엔 지	2005	자원개발	515
우 리 마 을	2004	식료품제조(정육)	496
퓨 트 라	2002	담배생산	45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분석팀

2. 진출확대 방안

가.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 분야

□ 농·축산물 관련 산업 위주의 진출이 바람직

- 농·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몽골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할 때, 몽골의 농·축산업 발전을 보다 전략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을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관련제품 가격 및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단순한 재배작물 및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몽골을 신기술 적용 시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 개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작물 : 기존의 채소, 화훼작물, 농산물, 시설작물 생산업 중 신영농기술적용사업

· 축산 : 기존의 축산업과 생명공학 및 신기술 적용사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광업 등 에너지개발 분야에 투자 확대

- 몽골 정부는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하에 외국인 투자교역청(FIFTA) 안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새로 제정된 ‘몽골석유법’은 1993년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혁신적인 조세유예 및 관세우대, 내국민대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석유와 광물부문은 투자 후 10~15년 동안 안정적인 조세환경 조성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조성에 몽골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몽골은 1999년 ‘한·몽 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

□ 기계 및 전자제품의 수출확대에 노력

- 몽골은 제조업 기반 취약이 취약하고 기계 및 전자제품 수입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동 업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이 경우 적정규모의 투자가 병행된다면 몽골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유치와 기술습득의 기회로 작용하여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 또한 생산기술의 이전 뿐 아니라 한국의 생산시설 운용기술 및 경영 기법 등을 동시에 전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음.

- 전자 정보통신기기 : 사무주변 기기 생산 및 부품제조업

- 섬유산업 : 현지생산 원료를 이용한 고급섬유 제품

- 원자력 : 수력자원이 부족한 몽골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몽골 전력사업의 주축으로 성장 가능한 부문임.(원자력발전소 건립, 핵연료가공, 핵폐기물 처리 관련 산업 포함)

□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확대에 노력

- 정보통신분야는 우리나라와 몽골 양국간의 비즈니스 교류 특히 인적 및 경험교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문임.

- 몽골의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인프라를 감안할 때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시장의 발전이 예상되는 바, 현물출자 형식을 통한 투자 및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몽골인들의 한국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함.

□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도 유망분야

- 아직까지 국책은행의 독점적 관행이 남아 있어 금융 및 보험부문에 대한 교류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일반 금융 및 기타 금융업, 보험, 금융 관련서비스업

- 의료서비스 : 일반, 치과, 한방병원

- 교육서비스 :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및 전문 강습소

나. 정책과제

□ 통상·경제협력 확대문제

- 몽골정부는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ODA가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몽골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문제

- 2003.11월 앵흐바야르 총리 방한시, 몽골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

한·몽골간 FTA 체결을 제안한 이래, 수차례 걸쳐 FTA 체결희망을 지속 제기 중임.

- 우리정부는 FTA체결이 성격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몽골과의 FTA 추진 논의개시는 어렵다는 입장임.

□ 영사 및 문화 분야

- 몽골측은 양국 노동부간 “인력송출을 위한 MOU”에 의거하여 고용 안전센타에 배치된 몽골인력이 명부에 있는 숫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숫자만이 선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체들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고용안전센타에 할당된 몽골 인력을 더욱 선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근절 및 생산성 높은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몽골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몽골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 업체부적응, 건강이상(질병, 장애 등) 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노동부는 2004. 12월 몽골 인력 도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몽골측의 중단 해제 요청을 수용하여 2005. 3. 25자로 해제한 바 있음.